

불교의 평화사상

양 방 주*

목 차

- I. 머릿말
- II. 불교의 성립과 평화의 문제
- III. 불교 평화사상의 원리
- IV. 불교 평화사상의 실천 방안
- V. 맺음말

I. 머릿말

대부분의 종교는 그 속성상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또는 그 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불교는 특히 평화의 종교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오늘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삶이 각박해지고 치열해져서 비인간적인(인간성 상실의) 현상이 만연한 상태에서 불교가 열반(涅槃),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는 수행, 비폭력과 무소유, 고요한 산사(山寺)의 풍경, 자비로운 부처의 모습 등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불교를 평화의 종교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그것은 불교의 평화사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저해하게 되고 나아가 불교를 통한 평화의 구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또는 오늘날 불교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 혹은 국가가 과연 평화적이기만 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¹⁾ 한편으로는 불교의 근본적인 교설이 이상적인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불교를 평화의 종교라

*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1) 트래버 링, 김정우 역, "불교·전쟁·평화", 「현대사회와 불교」, 한길사, 1991, pp.348-366.

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그 교설이 실현되는 과정 혹은 결과를 보면 반드시 저절로 평화롭게 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불교의 평화사상에 대해서는 그 종교-철학적인 면, 문화-생활양식적인 면, 사회-제도적인 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²⁾ 물론 이러한 고찰은 불교 평화사상의 원리와 이상을 바로 이해하고 그를 통한 평화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방향을 전제로 하되 종교적 측면으로 제한하여 불교의 평화의 원리와 구체적 실천방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심도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관련 자료들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연구자료 또한 1차적인 경전(經典)등을 토대로 하기 보다는 2차 자료들을 주로 이용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제한점은 이 글의 목적이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서의 불교의 평화사상을 일반에 소개하여 오늘날 우리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 단초로 삼게 하고자 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II. 불교의 성립과 평화의 문제

1. 불교에 있어서 평화의 성격과 내용

평화란 일반적으로 대립과 갈등 나아가 투쟁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한다.³⁾ 이러한 평화는 단순히 대립, 갈등, 투쟁이 없는 소극적인 성격과 사랑과 정의의 구현으로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져 평안과 행복이 충만한 적극적인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적인, 내적인 것과 사회적, 외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마음의 평화와 영구 평화로 분류하기로 한다.⁴⁾ 마음의 평화란 양심의 평화라고도 하는데 고뇌, 탐욕, 원한 등이 사라

2) 심재룡, "불교의 평화사상", 『현대사회와 평화』, 서광사, 1991, pp.159-160.

3) 김승동, 『유교·중국사상사전』,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4) 市川白弦, 안문흠 역, "불교에 있어서의 평화", 『현대사회와 불교』, 한길사, 1991, pp.218-226.

진 마음의 안정을 의미한다. 영구 평화란 현실에서의 삶에 있어서 '내란이나 전쟁을 유발하는 객체적·주체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불교의 평화를 '무쟁(無爭)의 세계'라 하여 '안으로는 극념(克念)에 힘쓰고 밖으로는 부쟁(不爭)의 덕을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대자적(對自的)으로 애증의 관념에 의한 갈등을 없애고 나아가 애증의 관념을 없앤다는 것마저 사라져 대타적(對他的)인 다툼이 없게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불교의 평화는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인간관계, 평화로운 마음씨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 평화로운 사회란 단지 제 마음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는 사회로서 개인의 도덕적 행위와 적당한 부[재화]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단지 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고상한 도덕성이 삶의 질을 결정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이다. 평화로운 인간관계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친절함[慈], 남의 고통을 나누어 가짐[悲], 남과 기쁨을 나누어 가짐[喜], 고통과 기쁨을 비롯하여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음[捨]의 네 가지 마음[四無量心]이 실행되는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씨는 불교 평화의 핵심이다. 이는 올바른 수행을 거쳐 마음속에서 탐욕과 화냄,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다시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이를 이른 상태를 열반(涅槃, nirvana)이라고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불교의 평화는 개개인이 열반의 증득(證得)을 위하여 정진하는 가운데 남에게 사무람심으로 대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평화는 이상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구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가 하면 불교는 현실상황을 토대로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나아감으로서 평화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 또한 중시한다. 제거해 나갈 평화의 저해 요소로는 쾌락의 추구, 지나친 가난, 특정의 견해에 대한 집착, 언어, 상이한 사회가 가진 편견, 지나친 이기심, 자아 정체감에서 벗어나지 못함 등 일곱 가지를 든다. 평화의 토대를 구축해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비폭력의 실천이다.

5) 심재룡, 앞의글, pp.163-165, 168.

2. 불교의 성립

불교는 깨달은 자 즉 불타(Buddha)라 불리는 석가모니 고타마 싯달타(Gotama Siddhatha)에 의해 시작되고 당대에 종교로서 성립되었다. 고타마 싯달타는 절대자에 의존함이 없이 수행에 의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완전한 평화[열반]를 얻고 그 깨달은 바를 몸소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고타마 싯달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불교의 평화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고타마 싯달타의 삶과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⁶⁾ 고타마 싯달타의 생애를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평화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를 이루어 보여 주었으며, 그를 실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어릴 적 농경제(農耕祭) 행사의 체험과 사문유관(四門遊觀)이라 불리는 일을 통해서 왕궁 밖의 모습을 경험한 후 삶의 불평등과 근본적인 괴로움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평화를 얻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들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걱정 번뇌가 없고, 지저분함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한 삶[涅槃]을 얻기 위해서였다. (중야함경, 권 56, 라마경)

이 세상에 만약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여래(如來 : 부처님)는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잡아함경, 권14, 346)⁷⁾

한편 출가의 원인을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역시 근본적인 평화를 얻고자 하였다는 데는 다름이 없다. 고타마 싯달타가 왕자로 있었던 시기의 인도사회는 일찍이 인도지역으로 이주해 온 아리아인들이 부족 사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브라만 사상에 의해 안정된 체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직접 인용하거나 요약하여 활용하였다.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불교학 개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찰스 프레비쉬, 박용길 역, 「불교」, 고려원, 1993.

피아세나 닷사나야케, 정승석 역, 「불교의 정치철학」, 대원정사, 1987.

7) 교양교재 편찬위원회, 위의 책, p.31.

제를 유지해 오는 동안 사회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큰 변화를 겪으면서 육사외도(六師外道)의 출현과 같은 사상계의 혼란과 강력한 국가의 출현으로 여러 약소 부족 국가들이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약소 부족국가의 왕자였던 그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출가한 고타마 싯닷타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하여 현세적인 평안을 포기하거나, 괴로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육체의 학대를 통하여 평안을 얻고자 하는 고행주의(苦行主義) 방식이나 심신(心身)의 일시적 희열상태를 경험하는 선정주의(禪定主義) 방식을 모두 체험한 후 그 극단을 떠난 중도(中道)의 방법으로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고 그를 통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평화 즉 열반을 얻게 되었다. 그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모든 괴로움은 그 근본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이 들어있는 진리에 대한 무지 즉 무명(無明)이다. 따라서 이 무명을 타파하면 모든 현실의 괴로움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즉 무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존재의 실상이다.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게 된다. 존재의 실상은 어떠한가? 모든 존재는 무상(無常)하고 무아(無我)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상하고 무아한 것들이 자신의 의지와 어떤 조건들에 의한 상의상관(相依相關)의 법칙에 의해 연기(緣起)해 있다. 모든 존재는 오로지 이러한 연기의 법(法)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평화 그 자체이다. 이를 깨달음으로서 내적인 번뇌가 없어지고 타자와의 관계에 의한 괴로움 또한 사라져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내적인 평화를 얻은 고타마 싯닷타는 동시에 자신의 전 우주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과 연기해 있는 자신의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해 줌으로써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우선 출가 수행자들에게 중도의 수행방법과 사성제(四聖諦)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였는데 이로써 불교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그는 왕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 시켜 나갔는데 그 대상에 계급의 귀천, 빈부의 차별, 인종의 구별을 두지 않았으며 그들로 하여금 화합, 평등, 진리[法]에 의한 삶을 살도록 하였다. 고타마 싯닷타의 일생을 통하여 볼 때 불교의 평화와 그 사상은 스스로 존재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나

아가 그 존재들에 대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 대립과 갈등이 사라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하겠다.

Ⅲ. 불교 평화사상의 원리

여기에서 말하는 불교 평화사상의 원리란 불교적 평화의 구현에 있어서 그 논리적 근거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론 체계를 말한다. 그것은 평화를 대립·갈등의 해소와 조화·협력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도의 원리와 조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여러 사상은 이와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련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특히 중도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으로 중관사상(中觀思想)을, 조화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화엄사상(華嚴思想)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상은 원시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두 사상은 불교의 제반 이론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글의 취지와 관련하여 중관사상으로 팔부중도설(八不中道說)과 공관(空觀)을, 화엄사상으로 사종법계설(四種法界說)과 육상원융설(六相圓融說)을 소개하고자 한다.⁸⁾

1. 중도의 원리 : 중관사상

1) 배경

불교 평화의 이상은 내 마음 속에서 탐욕과 화냄과 어리석음이 모두 사라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존재의 실상인 중도(中道)의 이해와 실천으로서 가능하다 하겠다. 중도란 '유(有)와 무(無)라는 편견과 단(斷)과 상(常)이라는 대립된 견해를 완전히 극복한 경지(境地) 그 상

8) 이에 대해서는 이를 비교적 쉽게 풀이해 놓은 앞의 책 「불교학개론」을 주로 인용하거나 원용하였다. 인용 표시는 생략하였다.

대'를 말하는 바⁹⁾ 그것은 '일체의 대립과 투쟁을 극복하여 화합으로 지양시키려는' 평화 구현의 원리로서도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유와 무, 상과 단 이라는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우주의 보편적 원리로서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 등 일체의 모순과 대립을 원칙적으로 해결 해 주는'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교는 고타마 싯달타 이래 항상 이러한 중도의 입장을 취해왔는데 용수(龍樹, Nagarjuna)에 이르러 중관사상(中觀思想)이 성립됨으로서 중도는 학파명이 되고 그 사상체계의 근본이 되었다.

중관사상이란 기존의 '중도의 교의(教義)'가 부정이론을 통해 용수에 의해 체계화 된 것이다. 대승적인 부정론을 인도의 명칭으로는 중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중도의 교의라는 뜻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공관(空觀)이라고 한다. 이는 '부정하는 이론', '상대성'을 뜻한다.¹⁰⁾ 중관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제법실상(諸法實相)과 중도의 이치를 직관하는 일, 가(假)와 공(空)을 하나로 보는 지혜의 통달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다시 말하면 중도의 지혜라 하겠다. 용수의 중관 사상은 직접적으로는 반야경의 공성교의(空性教義)에 의존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타의 중도설을 이어 받고 있다.¹¹⁾

중관사상의 근본이 되는 불타의 중도설은 12연기설에 입각한 무아설(無我說)과 무기설(無記說)을 그 내용으로 한다.

연기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그 해결점인 존재에 대하여 그 실상을 가장 축약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하는 이론이다. 12처 [十二處, 즉 눈, 귀, 코, 혀, 몸, 의지와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와 4대 [四大, 즉 地, 水, 火,], 오취온[五取蘊, 즉 色, 受, 想, 行, 識]으로 파악되는 모든 존재는 무상(無常)하고 무아(無我)한 속성을 갖는다. 한편 그것은 무상하고 무아하면서도 인과율과 인연화합의 법칙을 토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관련되는 가운데 생멸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존하고 있다.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며 이를 연기(緣起)라고 한다.

9) 중도에서의 중이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그를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모든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중도란 중의 진리를 체득한 상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중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괴로움과 즐거움을 떠나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10) 高楠順次郎, 정승석 역, 「불교철학의 정수」, 대원정사, 1989, pp.132-134.

11) 安井廣濟, 김성환 역, 「중관사상 연구」, 문학생활사, 1988, pp.34-43.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는 잡아함경의 공식(公式)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모든 존재는 이러한 법칙에 의거 하므로 일체를 제법(諸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고유하고 절대적인 본질자성(本質自性)이 없으며 따라서 존재의 생멸에 관해 중도가 있게 된다. 후대에 발달된 대승이론(大乘理論)은 거의 이 연기의 이론을 더욱 심화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용수(龍樹)의 중관사상, 세친(世親)의 유식사상(唯識思想), 그리고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이나 보살계사상(菩薩戒思想)에 이르기 까지 그 근원에는 이 연기적 중도관이 담겨 있다.¹²⁾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토대로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인 노·병·사(老·病·死) 등의 발생과 소멸을 중도적으로 설명한 것이 12연기설이다. 그 중심에는 무명(無明)이 있다. 현실 생활에서의 온갖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노·병·사 등은 제법실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에서 연기한 것이므로 그 실체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현재하는 것도 무명의 타파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노·병·사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다’거나 ‘없다’고만 해서는 안된다. 바로 양 극단을 떠난 중도의 입장에서 바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불타의 대표적인 중도설인 무아설이나 무기설 역시 이와 같다.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무아’라는 근거에 입각하여 아트만(atman)을 부정하는 무아설은 망념(妄念)에서 연기한 망아(妄我)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되는 바 무아설은 바로 유·무의 두 끝을 떠난 중도적인 교설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불교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형이상학적인 희론(戲論)인 열네 가지 질문 즉 ①세계는 상(常)인가, 무상인가, 상이며 무상인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가 ②세계는 유한인가, 무한인가, 유한이며 무한인가, 유한도 아니고 무한도 아닌가 ③정신과 육체는 하나인가, 둘인가 ④여래(如來)는 사후에 유인가, 무인가, 유이며 무인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가에 대해서 불타는 침묵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질문의 대상이 유와 무, 단(斷)과 상(常), 자작(自作)과 타작(他作) 등의 두 극단을 초월해 있는

12) 정병조, “한국인의 평화사상”, 『한반도 평화론』,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89, p.42.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이를 14무기설(十四無記說)이라고 한다.

중관사상은 분별심(分別心)을 씻어내어 올바른 진리관을 정립해 주는 사상이다. 즉 대상을 인식할 때 집착하는 마음인 편견과(偏見)과 사견(邪見)을 정화해 주는 것이다. 중관이란 곧 정관(正觀) 그리고 중도라는 말과 통하는데 단(斷)·상(常)·유(有)·무(無) 등의 극단에 치우하는 사건을 시정하고 중도적인 진리를 올바르게 관찰하는 지혜를 말한다. 그러므로 중(中)은 인식의 대상이고 관(觀)은 대상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지혜로서 이는 파사현정(破邪顯正)과도 통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중관사상은 용수(龍樹)의 팔부중도(八不中道)를 통해 잘 드러난다.

2) 팔부중도

팔부중도는 그의 저서 「중론(中論)」에 나타나 있는데 유자성론(有自性論)에 대한 비판으로서 생(生)과 멸(滅), 상(常)과 단(斷), 일(一)과 이(異), 거(去)와 래(來) 등의 8종의 미망[八迷]을 제거해 주는 사상이다. 즉 불생과 불멸, 불상과 부단, 불일과 불이, 불거와 불래 등의 팔불(八不)로 팔미의 양 극단을 분쇄하는 것이다.

불생과 불멸은 생멸의 양 극단을 부정한 것으로 삼라만상의 생(生)은 인연이 화합하여 나타난 것이며 멸하는 것은 인연이 다되어 사라지는 것 뿐임을 말한다. 이는 생과 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집착하는 것을 고쳐준다. 이 경우는 불생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불생을 밝힐 수 있다면 당연히 생이 없으므로 멸이 없게 되어 불생과 불멸이 밝혀지고 따라서 나머지 여섯도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불생은 연기된 존재는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자성에 의한 생기(生起)가 부정되는 것이다.¹³⁾

불일과 불이는 일체의 법은 진리의 본체에서 보면 동일한 원리이지만 현상계의 사물이 서로 다른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른 현상인 것처럼 집착하는 견해를 부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진리는 하나이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하나인 원리임을 밝혀준다.

13) 梶山雄一 外, 정호영 역, 「空的 논리」, 민족사, 1990, pp.202-203.

불상과 부단은 현상계의 겉모습만 믿거나, 중생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머물 것[상주.常住]이라고 기대하며 집착하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불상.不常]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생명체가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부정하는 것[부단.不斷]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중도를 통하여 밝혀준다.

불거와 불래는 참된 존재는 가고 옴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불거를 중심으로 논증하고 있다. 이미 간 것은 간다는 상태가 이미 없어진 것이고, 아직 가지 않은 것은 간다는 상태가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러므로 가는 상태는 없으며 [불거.不去] 따라서 오는 상태도 없다[불래.不來]는 것이다.¹⁴⁾

용수(龍樹)는 이와 같은 팔부중도설을 토대로 중의 진리를 파악하는 태도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실제로 생하고 멸한다는 견해로서 이를 단속(單俗)이라 한다. 둘째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견해로서 이를 단진(單眞)이라 한다. 이 둘은 진과 속에 치우친 편견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생과 멸은 임시이며 거짓이라고 하는 견해로서 이를 세제중도(世諦中道)라 한다. 넷째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임시라는 견해로서 이를 진제중도(眞諦中道)라 한다. 다섯째는 생멸도 아니고 생멸이 아님도 또한 아닌 것이라는 견해로 이를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라 한다. 이와 같은 팔부중도설은 '모든 존재에 자성이 없다'고 하는 연기설의 입장에서 논증되고 있는데 '모든 존재에 자성이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모든 존재는 공(空)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공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공관(空觀)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와 같이 용수의 중관사상은 얻은바가 없으며[무소득.無所得], 머무름이 없는[무소주.無所住]의 공(空)사상으로 귀결되어 범부(凡夫)의 집착과 구속된 마음을 해방시켜 준다.

3) 공관

공사상은 현상계에 존재에 대한 집착인 유(有)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14) 위의 책, pp.209-210.

15) 위의 책, p.210.

다. 그렇다고 하여 현상계를 단순히 무(無)라고 보지 않는다. 현상계는 여러 인연이 화합한 존재로서 그 이면을 관찰해 보면 무자성(無自性)이고 무아(無我)이며 무소유(無所有)인 진리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공(空, sunya)이라 하였다. 또한 공은 전혀 내용이 없는 편공(偏空)이 아니라 현상계의 유를 포용하는 공이므로 중도적인 공이다. 그러므로 유라 하여도 공을 내포하고 있는 유이며, 공이라 하여도 유를 내포한 공이므로 이를 유공(有空)의 중도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현상계는 유와 공이 동시에 포함되어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이룬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유(假有)이다. 그런데 인연이 모여 흩어질 때까지는 가유이기는 하지만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증관사상은 모든 존재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치우치는 견해를 교정하고, 진리의 바탕을 정당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해 준다.

2. 조화의 원리: 화엄사상

1) 배경

불교 평화 구현의 원리로서 조화의 원리는 중도의 원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중도의 원리는 모든 존재의 실상[진리]을 편견과 사견이 없이 보고 바른 마음을 가짐으로서 존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제반 괴로움의 원인[貪·瞋·痴]을 제거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조화의 원리는 참된 존재의 세계[법계]에서 각 존재들은 서로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깨달아 타자(他者)와의 불협화로 인한 대립,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조화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평화를 구현하게 되는 원리이다. 중도의 원리가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이며, 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일차적으로 내적인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바탕인데 비해 조화의 원리는 존재의 양상에 대한 탐구이며, 모든 존재는 바로 진리의 드러남이라는 긍정적 방법을 사용하고, 외적인 인간 및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의 평화를 구현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서로 비교되면서 또한 상호 보완적이다. 조화의 원리는 화엄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화엄사상(華嚴思想)이란 화엄경(華嚴經)의 사상을 말한다. 이것은 사상 성립에 있어서 중관사상과 비교가 된다. 중관사상은 불타가 직접 행하고 말한 중도를 용수(龍樹)등이 새로운 논리체계를 이용하여 교의(教義)화 한 것으로 그러한 저술들[중론·백론·십이문론 등]에 토대를 둔다. 그러나 화엄사상은 불타 이후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확실치 않으나 불타가 깨달은 내용과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저술한 화엄경에 토대를 둔다. 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본래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다양한 꽃들로 장식된 것으로 비유된 무한히 크고 넓은 즉 시공(時空)을 뛰어 넘는 장엄한 불타(혹은 불타의 세계)에 대해 방대한 광으로 서술해 놓고 있다. 여기서 불타란 궁극적인 실재로서 우주를 말한다. 그러면서 사종법계(四種法界)와 그에 관한 설명인 십현연기설(十玄緣起說)과 육상원융설(六相圓融說)을 통해 불타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을 화엄사상이라 부른다. 그 요체는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법에서 연기한 것으로 법 그 자체[불성,佛性]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며 그것들 간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무궁무진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 '일즉다, 다즉일(一即多即一)'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一, 개체)과 다(多, 전체)간에는 그 이치로서 원만하고 조화롭게 통하여 서로 장애가 됨이 없이 연기되고 있다는 의미이다.¹⁶⁾

2) 사종법계

사종법계(四種法界)란 화엄사상의 세계관이다. 법계란 진리의 세계를 뜻하는 말인데 의식이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심(一心)에 의해 통괄되는 우주로서 법에 연기하여 나타난 것들의 세계이다. 이것을 현상과 본체의 양면에서 관찰하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사법계(事法界)이다. 이것은 차별이 있는 객관적인 현상의 세계[사실의 세계]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사물]들은 인연에 의해 화합된 것이므로 한계가 있어서 제각기 구별된다. 둘째는 이법계(理法界)이다. 이것은 사물들의 본체의 세계이다. 본체

16) 화엄사상 전반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저술을 참고로 하였다.

鎌田茂雄, 한형조 역, 「화엄의 사상」, 고려원, 1987.

란 사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치를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공의 세계이다. 셋째는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현상적인 측면[사법계]과 본체적인 측면[이법계]을 따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존재하는 것은 현상과 본체를 다 구비하고 있는데 그것들 간에 막힘이 없이 상호 관계가 이루어져 비로소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와 사가 서로 막힘이 없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측면을 고찰한 것이 이사무애법계이다. 넷째는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이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것들은 각각 그 체(體)와 용(用)이 있어서 별개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한편으로는 그들 간에 서로 막힘이 없이 원만한 관계를 통해 한 우주자연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상[事]을 통해서 각 개체들을 상대시켜보면 그들 각각의 인연들[다연, 多緣]이 상응하여 또 하나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은 각각의 인연들과 다시 상응하여 또 하나의 어떤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事)와 사(事)[개체와 개체 간, 개체와 전체 간]는 막힘이 없이 반복 중첩되어[중중무진, 重重無盡] 전 우주를 이룬다. 이것을 무진연기(無盡緣起) 또는 법계연기라고 한다. 법계를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설명하는 것이 십현연기설(十玄緣起說)과 육상원융설(六相圓融說)이다.

십현연기는 법계를 연기의 관점에서 그 상(相)을 설명한 것으로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 제법상용자재문(諸法相應自在門), 인타라미세경계문(因陀羅薇細境界門), 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 비밀은현구성문(秘密隱顯俱成門), 제장순잡구덕문(諸藏純雜具德門),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 유심회전선성문(唯心廻轉善成門), 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이 글과 직접 관계되지 않으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3) 육상원융

육상원융(六相圓融)은 십현연기와 함께 법계연기(法界緣起)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그밖에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화엄사상의 중요부분이다. 육상의 원융함은 무엇인가? 연기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반드시 여러 연(緣)이 모여 성립되므로 총상(總相), 별상(別相), 동상(同相), 이상(異相), 성상(成相),

괴상(壞相)의 여섯 상을 갖추고 있다. 이 육상은 서로 다른 상을 방해하지 않고 전체와 그 부분들인 개체 그리고 부분과 부분이 일체가 되어 원만하게 융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육상 가운데 총상, 동상, 성상은 모두 같은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별상, 이상, 괴상도 공통된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총·별, 동·이, 성·괴라는 세 쌍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물을 설명한다. 이들이 서로 원융무애(圓融無碍)하는 관계에 놓여 있어서 하나에 다른 다섯이 포함되면서도 여섯이 나름대로의 모습을 잃지 않으므로 법계연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육상원융설이다.¹⁷⁾

총상과 별상은 존재[연기]의 본체에 관한 것이다. 개체들이 모여 이루어진 전체는 그 나름대로의 본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총상이다. 즉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개체들을 총괄하는 상이다. 별상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본체를 말하는데 그것들은 별개의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의지 하는 유기적인 관계로서 원융하다. 전체적 통일의 입장에서 보면 총상이고, 차별의 현실에서 보면 별상이다.

동상과 이상은 존재의 형상(좁은 의미의 모양)에 관한 것이다. 동상이란 별상의 하나하나가 서로 조화되어 모순됨이 없이 성립되는 힘을 균등하게 하고 있는 모양이다. 서로 차이나는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상이다. 이상은 별상이 서로 혼동되지 않고 있으면서 제각기의 상을 잃지 않고 조화되어 있는 모양이다. 동상을 차별, 변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이 된다.

성상과 괴상은 존재의 작용에 관한 것이다. 개별 존재들이 각각의 기능과 인연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전체를 이루는 작용을 성상이라 하고, 반대로 개별 존재들이 각각의 기능과 인연을 희생하고 유보함으로써 전체를 이루려는 작용을 괴상이라고 한다. 이 육상의 원리는 집과 그 집을 구성하는 기둥, 서까래, 대들보들의 관계로 비유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육상의 원리는 화엄의 법계연기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실천적 요구가 깔려있다. 화엄의 지극한 경지는 이 원리를 터득하고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⁸⁾

17) 위의 책, pp.124-125.

18) 위의 책, pp.125-126.

이제까지 설명된 사종법계와 육상원용은 중도의 원리가 개인의 마음의 평화로 작용하는데 비해 사종법계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육상원용은 개인 대 집단간의 관계에서 평화를 구현하는 조화의 원리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육상원용은 불교의 평화사상을 가장 간명하게 체계화시킨 이론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⁹⁾ 즉 육상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전체[총상]는 개체[별상]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 개체가 모여야만 전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체는 동질성[동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적 특수성[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양자를 혼동할 때 생겨나는 그릇된 현상이 획일주의이며 전체주의이다. 반대로 개체적 특수성은 자체의 동일성과 일치해야 조화가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된다. 또한 전체는 완벽한 성취[성상]를 이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성취를 위해서는 자기희생[괴상]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리는 개인과 집단(특히 국가 혹은 민족)간의 관계에서 평화의 원리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향한 우주의 존재들 사이에서 지시되는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나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원리로서 그 의미를 찾기도 한다.²⁰⁾

IV. 불교 평화사상의 실천 방안

불교 평화사상의 실천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평화를 얻기 위한 방안이고 다음은 평화의 사회적 구현 방안이다. 불교는 모든 존재의 실상[진리, 정법]을 깨달아 내 마음의 무명에서 비롯된 탐욕과 화냄, 어리석음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함으로써 열반을 얻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종교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력에 의한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불교는 단순히 열반을 증득(證得)하기보다는 그 과정으로서 해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해탈은 즉 무명의 타파는 무명의 실체를 바로

19) 정병조, 앞의 글, pp.44-45 요약.

20) 이기영,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의", 「한국화엄사상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6. pp.359-360.

보고 진리를 얻는 방법과 무명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무명에 의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여 얻어진 바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완전한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를 평화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보면 불교의 평화는 진리의 획득과 그를 실천하는 삶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불교의 구체적 내용은 전자와 관련하여 팔정도(八正道)와 십선업(十善業)을, 후자와 관련하여 육바라밀(六波羅蜜)로 대표되는 보살도(菩薩道)와 정법정치(正法政治)를 들 수 있다.²¹⁾

1. 팔정도(八正道)의 수행

팔정도는 고타마 싯닷타가 실한 초전법륜(初轉法輪)의 하나로서 십이연기설에 입각한 실천적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에 제시되어 있다. 사성제란 인간에게 있어서 생사의 괴로움의 원인과 그 치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괴로움에 대한 현실적 판단[고, 苦]과 괴로움의 발생과 그 원인[집·集], 괴로움의 사라짐[멸, 滅] 그리고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도, 道, 깨달음을 얻는 방법]의 네 가지 진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진리를 깨닫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팔정도(八正道)이다. 팔정도는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의 여덟 가지 실천사항[수행방법]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해탈의 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정견은 바르게 본다는 뜻으로 “법을 잘 결택(決擇)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팔정도 수행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정사유는 바르게 사유한다 또는 바르게 마음 먹는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可念]와 생각 할 수 없는 바[不可念]를 마음에서 잘 분간하는 것”이라 설명 된다. 또는 생각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려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소극적인 십선업의 세 가지 선한 의업(意業)과 통한다.

정어는 바르게 말한다는 뜻으로 십선업의 네 가지 구업(口業)과 통한다.

정업은 바르게 일한다는 뜻으로 십선업의 세 가지 신업(身業)과 통하는데

21) 이에 대한 내용은 앞의 책 「불교학 개론」을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명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적당하게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정정진은 바르게 노력한다는 뜻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물러섬이 없이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것은 선(禪) 수행에 있어서 용맹정진(勇猛正進)과도 통한다.

정념은 바르게 기억한다는 뜻으로 “생각한 바에 따라 잊지 않는 것”이다.

정정은 바르게 집중한다는 뜻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삼매(三昧, samadhi)의 수행법과 통한다. 또한 이것은 정견에서 시작한 모든 수행의 귀결 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약하면 팔정도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정견] 그에 입각한 수행[정사유-정념]을 통해 마음을 진리에 일치 시킬 수 있도록 집중[정정] 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정견과 정정이 중요한데 이는 불교 수행법에 있어서 지(止)와 관(觀) 그리고 정(定)과 혜(慧)의 기본 원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십선업(十善業)의 생활

진리를 바로 보고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진리에 어긋나는 행위[악업, 惡業]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악업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즉 무명에 의한 삶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에게 해를 끼치고, 진리에 어긋나며, 진리를 얻는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한 인간의 모든 행위를 10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몸으로 지어내는 살생(殺生), 도둑질[투도, 偷盜], 음란한 짓[사음, 邪淫] 세 가지[신업, 身業]와 입[언어]으로 지어내는 거짓말[망어, 妄語], 이간 붙이는 말[양설, 兩舌], 욕설[악구, 惡口], 꾸며대는 말[기어, 綺語] 네 가지[구업, 口業]와 , 뜻[생각]으로 지어내는 탐욕(貪慾), 성냄[진에, 瞋恚], 어리석음[치암, 痴暗] 세 가지[의업, 意業 또는 사업, 思業]이다. 이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악업이다. 이를 부정하고 행하지 않게 되면 선한 행위[선업, 善業]를 하

게 되는 것이다. 십선업은 따로 정하지 않고 십악업을 부정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의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선업과 불망어(不忘語), 불양설(不兩舌), 불악구(不惡口), 불기어(不綺語)의 네 가지 말로 짓는 선업 그리고 무탐(無貪), 무진(無瞋), 무치(無痴)의 세 가지 생각으로 짓는 선업이다. 10업 중에 근본이 되는 것은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의업이다. 왜냐하면 행위[업]는 본래 의지[뜻, 생각]에서 발생하여 언어로, 또는 신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십선업을 행하는 것은 무명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방법이다. 이를 평화 구현과 관련하여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보살도(菩薩道)의 수행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르고자 함이다. 그를 위해 수행과 공부에 전념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매우 개인적이고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하기에는 각자의 능력과 여건의 차이로 인해 차별이 생기게 되며, 연기에 의한 존재인 인간이 홀로 열반에 든다는 것은 진정으로 열반에 들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다른 불교적 삶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깨달음을 통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한 후 그를 바탕으로 더욱 정진 수행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를 실천하는 삶이라 하겠다. 이것이 이른바 보살도이다. 보살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는 자리적(自利的)인 성격을 갖는 끊임없는 정진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이타적인 바라밀(波羅蜜)의 실천 수행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삼현(三玄), 십지(十地)의 수행이 대표적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의 수행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이 글의 목적과 논리전개에 따라 후자인 반야바라밀의 수행만을 다룬다.

반야바라밀의 수행 주체는 보살(菩薩)이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구하는, 또는 깨달음 속에 있는 중생(衆生)을 말한다. 보살은 깨달음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존재이다. 그를 위해서 보살은 서원(誓願)을 세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토를

정화하고 중생을 구하겠다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이다. “중생의 수가 무한히 많지만 건지고야 말겠다. 번뇌(煩惱)가 끝이 없어도 끊고야 말겠다. 법문(法門)이 없이 없어도 배우고야 말겠다. 불도(佛道)가 한없이 높지만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진리의 깨달음을 구하고 현실의 중생을 교화한다[上求菩提 下化衆生].”는 말로 표현된다. 보살의 중생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괴로움의 세상[차안, 此岸]에서 구제하여 해탈의 세계인 피안에 이르게 한다.[도피안, 到彼岸]”라는 뜻을 가진 바라밀의 수행이다. 바라밀의 수행은 여섯 가지로 이루어지므로 육바라밀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반야(般若)의 여섯 가지를 말한다.

이 수행의 토대이자 최종 목표는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는 “모든 법의 자성(自性)이 공(空)함을 보고 존재의 실상을 직관하는 지혜”라는 말이다. 바라밀을 행하는 보살은 반야의 지혜를 토대로 나머지 다섯 바라밀을 행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생으로 하여금 반야의 지혜를 얻어 스스로 피안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다.

보시바라밀은 자기의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한다. 그를 행함에 있어서는 깨달은 마음 즉 청정심을 토대로 주는 자와 받은 자, 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보살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시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이다.

지계바라밀은 계율(戒律)을 잘 지니는 것을 뜻한다. 지계의 계율은 불교인이 지켜할 계율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법률과 도덕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도 계율을 지킨다는 부담감이나 혹은 자만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행해져야 참된 지계라 할 수 있다.

인욕바라밀은 괴로움을 받아들여 참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욕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제법(諸法)이 본래 불생(不生)”임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물이나 현상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무명에 의해 연기된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피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진바라밀은 부지런히 노력하여 마음을 풀어 놓지[방일, 放逸]않는 것을 뜻한다. 정진은 선업(善業)을 증장시키는데 필수불가결이며 여러 가지 수행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변증법적 부정에 의한 공관(空觀)의 실천은

무사안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진하는 것이다.

선정바라밀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여 사색하는 것을 뜻한다. 선정은 단순히 그러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을 통해 존재의 실상을 밝혀 인간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무지를 타파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것은 “머물음이 없는 법[부주법, 不住法]”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보살도의 수행은 자기희생을 통한 숭고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평화의 구현과 관련하여 불 때 인간관계와 사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라 하겠다.

4. 정법에 의한 정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에 못지않게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마음의 평화가 모든 평화의 기본이 되고, 매우 절실하다고 해도 그것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개인의 대응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와 같은 사회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초기 불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그것은 고타마 싯닷다가 겪은 앞에서 언급한 당시의 사회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그렇다면 평화 구현을 위한 불교의 정치사상은 어떠한 것인가. 그를 한마디로 한다면 정법주의(正法主義) 즉 정법에 의한 정치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정치이념에 대해서는 평등주의, 자비주의, 평화주의 등 여러 가지를 들고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정법주의라 할 것이다.

정법에 의한 정치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정법은 매우 관념적이고, 종교적이며, 이상적이어서 간단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연기법(緣起法)으로서 존재 그 자체, 존재의 실상, 진리 등으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는 “바른 것과의 일치, 우주적 진리, 관습적이거나 전통적인 규약, 정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질서, 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변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²²⁾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불교의 진리’라 할 수 있다. 불

22) 피야세나 닷사나야케, 앞의 책, p.186.

교에 있어서 정법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고타마 싯닷타가 얻은 것도 정법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중생이 이것을 얻으면 불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법의 구현은 불교의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이다. 다시 말하면 정법의 증득과 그 실현은 개인적인 수행의 최고 목표이자 국가 사회적 정치이념의 근본처(根本處)이다. 정법의 구현은 개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회가 조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일부의 경전들의 표현에 의하면 평화와 관련하여 정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석존에 의하면 정치의 방법은 '형벌에 의하지 않고, 무기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 통치한다'. - 『잡아함경』

모든 나라는 세계적인 보편법(다르마)에 따라 공존한다.-아쇼카왕

천재가 없고 인제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에 의해야 한다. - 『인왕호국반야경』²³⁾

불교의 전통에 의하면 이러한 정법의 구현은 전륜왕(轉輪王)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전륜왕[혹은 전륜성왕]은 진리의 수레를 굴린다 즉 정법으로 다스린다는 뜻과 같이 불교가 말하는 최고의 통치자이다. 전륜왕은 종종 불타에 비유되는 우주적 지배자로 인식될 만큼 위대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실제로는 단순한 "제왕이 아니라, 그의 제도 하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 및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도덕적 지배자이다."²⁴⁾ 이와 같은 전륜왕의 정법정치에 대해서 『금광명경(金光明經)』의 「정법정품론(正法正品論)」에서는 국왕은 몸을 바쳐 정법을 수호 홍선(弘宣)할 것이며, 법보를 존중해야한다는 대전제 하에, 악업의 금제(禁制) 및 비법(秘法)의 금지와 함께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여러 천신도 국가와 왕을 보호할 것이며, 우순풍조(雨順風調)하고 국태 민안하여 무상의 안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국왕은 왕위와 신명을 바쳐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할 것을 역설하였다.²⁵⁾

23) 齊藤榮之郎, 안문흠 역, "불교의 사회사상", 『현대사회와 불교』, 한길사, 1991. p.262.

24) 위의 책, p.181.

25) 교양교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31.

정치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인 전쟁에 관하여 불교는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인 전쟁을 반대하나 호국불교사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법의 수호와 중생의 구제를 위한 전쟁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에 관해서는 예방조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진륜왕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정법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간에 조화와 협력을 유지하도록 외교를 하며, 근본적으로는 상대 국가에서도 진륜왕의 정법정치가 행하여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교의 정치를 통한 평화의 구현을 오늘날에 비추어보면 구성원들로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능력과 특히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에 의해 진리와 정의를 지키고, 행하는 다소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V. 맺음말

인간은 자신과 그가 속한 사회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평화를 기원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바람직한 삶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종교들은 이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의 바른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불교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불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서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미래의 평화를 현재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교의 평화사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화의 사상이다. 그것은 불교를 하나의 종교로 성립시킨 고타마 싯닷타 즉 불타가 출가를 하게 된 계기와 그를 이루는 과정, 가르침의 내용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평화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이다. 열반은 존재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서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을 타파하여 해탈하고, 다시는 해탈할 일조차 필요없는 경지에 이룸으로서 얻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이다. 그러나 평화의 구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맹목적으로 열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얻는 해탈

의 평화를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시된다. 구체적으로는 한 마음의 평화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평화 그리고 국가 사회의 평화를 추구한다.

불교 평화사상의 원리는 중도(中道)와 조화(調和)이다. 이것은 깨달음의 결과 얻어진 모든 존재의 실상이다. 이를 원리로 하여 비평화의 원인인 자신과 대상에 대한 무지를 깨쳐서 평화를 얻고, 전 존재와의 대립과 갈등을 없애고 협력하는 평화의 관계를 이룩한다. 중도의 원리는 중관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중관사상의 '중도'는 "'유'와 '무'라는 편견과 '단'과 '상'이라는 대립된 견해를 완전히 극복한 경지"로서 "일체의 대립과 투쟁을 극복하여 화합으로 지양시키려는" 평화 구현의 원리가 된다. 중관사상의 주요한 내용은 '팔부중도설'과 '공관'이다. 조화의 원리는 화엄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존재 즉 전 우주는 진리 그 자체이며, 그것들 간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무궁무진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화엄의 원리는 바로 사회적 평화 구현의 원리가 된다. 구체적 내용은 '사중법계설'과 '육상원용설'이다.

불교 평화사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팔정도'의 수행이다. 이것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진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그에 입각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진리에 일치시키도록 집중하는 수행이다. 둘째는 '십선업'의 생활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방법으로 윤리적 사회생활을 통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실천 방안이다. 셋째는 '보살도'의 수행이다. 이것은 해탈을 얻은 자가 깨달은 바를 토대로 다른 사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수행이다. 이 수행은 자기 희생을 통한 숭고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인간관계와 사회에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이다. 넷째는 '정법'에 의한 정치이다. 이것은 인격적인 지도자와 진리와 정의의 이념에 의한 정치를 통해 국가사회와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는 방안이다.

참 고 문 헌

- 鎌田茂雄. 한형조 역, 「화엄의 사상」, 고려원, 1987.
- 高楠順次郎. 정승석 역, 「불교철학의 정수」, 대원정사, 1989.
-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불교학 개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김승동, 「불교·중국사상사전」,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 梶山雄一 外, 정호영 역, 「空의 논리」, 민족사, 1990.
- 市川白弦, 안문흠 역, “불교에 있어서의 평화”, 「현대사회와 불교」, 한길사, 1991.
- 심재룡, “불교의 평화사상”, 「현대사회와 평화」, 서광사, 1991.
- 安井廣濟, 김성환 역, 「중관사상 연구」, 문학생활사, 1988.
- 이기영,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의”, 「한국 화엄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6.
- 齋藤榮之郎, 안문흠 역, “불교의 사회사상”, 「현대사회와 불교」, 한길사, 1991.
- 정병조, “한국인의 평화사상”, 「한반도 평화론」,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89.
- 찰스 프레비쉬, 박용길 역, 「불교」, 고려원, 1993.
- 트레버 링, 김정우 역, “불교·전쟁·평화”, 「현대사회와 불교」, 한길사, 1991.
- 피아세나 닷사나야케, 정승석 역, 「불교의 정치철학」, 대원정사, 1987.